

철모르는 모기 잠 못드는 시민



초겨울 날씨 실내 유입 기승…전년동기보다 75% 증가

“여름에도 안 샀던 전기 모기채까지 장만했다” 하소연

광주 민원 하루 10여건 접수…자치단체 방역 소독 나서

광주시 광산구에 사는 김기민(30)씨는 요즘 잠을 깊게 못 자고 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立冬)이 일주일여나 지났지만 때늦은 초겨울 모기의 ‘웬~웬~’거리는 날갯짓 소리와 흡혈 공격으로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다.

김씨는 “요즘 집안으로 들어오는 모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구매하지 않았던 전기 모기채까지 장만했다”면서 “밤마다 모기에 물리고 잠을 설치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일반적으로 모기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기는 여름철이지만, 올 들어 광주에서는 쌀쌀한 초겨울에도 모기가 기승을 부려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는 8월 말부터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등 모기 유충이 번식할 수 있는 물웅덩가 많이 생기면서 기온이 낮아진 늦가을에 이어 겨울철에도 모기들이 활발할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욱고 질병관리본부 매개체분석과 조사관은 “잔바람이 불면 산속에서 활동하던 모기들이 따뜻한 도심으로 들어와 활동을 한다”면서 “최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모기들이 실내로 들어와 활동한 탓에 제갈 상으로 모기가 확 늘어난 것으로 느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부터 광주시의 5개의 자치구에는 모기 관련 민원이 하루 평균 10여건씩 접수되고 있으며, 자치단체들도 모기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13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광주에 설치된 모기 포집기에서 지난달 셋째 주 82마리의 모기를 채집했다. 이는 전

년동기 대비 채집한 65마리에 비해 26.1%(17마리)나 증가했다. 지난달 채집된 모기도 총 205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 채집된 117마리보다 75.2%(88마리)나 증가했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매주 1차례씩 광주 도심의 공원, 산, 수변 등 장소 3곳을

정해 채집을 하고 있다.

시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11월께부터 도심지역 아파트 지하실, 도심주변의 상가의 지하실 등 3곳을 정해 모기 채집할 계획이다. 이는 갑자기 증가한 초겨울 모기의 활동량 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문수진 광주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조사과 연구사는 “10월 채집기록은 숲 등에서 진행한 숲모기 기온으로 도심 주변에 발견되는 집모기와는 개체수를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초겨울 모기가 활동

성을 보이는 것은 도심 주변의 하수 등에서 성장한 모기가 따뜻한 실내로 유입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때아닌 초겨울 모기의 기승에 자치단체들도 집중 방역에 나서고 있다.

광주의 5개 자치구의 보건소는 지난달 말까지를 하반기 집중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을 진행했으며, 이달부터는 방역소독팀을 상시 대기시키는 등 적극적인 방역 활동에 나서고 있다. 한편 모기방역 신청은 거주지 각 구정 보건소로 하면 된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시 서구보건소 질병관리팀 직원들이 13일 광천동 주춧가 하수구에서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서부경찰 ‘이상한 수사’

중전건설사 회장, 여성 2명 성추행 혐의로 피소

담당부서 조사 중 형사과서 공갈 혐의 이례적 이중 수사

광주지역 중전건설사 회장이 30대 여성 2명을 동시에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례적으로 성추행 수사를 맡고 있는 부서와는 별개로, 형사과에서 피해 여성들을 공갈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성추행 신고가 여성 청소년계로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인데 형사과에서 별도로 성추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여기고 수사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3일 광주서부경찰 등에 따르면 중전건설법인 G사 P회장은 지난달 23일 광주 서구 D일식집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탑승하고 있던 30대 여성 2명의 신체 일부를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여성들은 성추행 사건 이를 뒤인 지난달 25일 광주해바라기센터에 피해 진술서를 작성, 제출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접수된 진술서에 따르면 P회장은 지난달 23일 오후 2~4시께 D일식집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 일행 4명과 합석한 뒤 술을 곁들여 식사를 했다. 이후 P회장은 귀가하러던 여성 2명이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 중 양자리에 앉은 뒤 양 옆에 앉아있는 여성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여성 일행은 이날 오전 골프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찾은 일식집에서 P회장을 만났다.

P회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만나서 그런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꾸민 것 같다”면서 “취중에 술 한 잔을 마셨지만 그 이상은 (경찰)조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것 같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현재 해바라기 센터에 접수된 진술서를 토대로 피해 여성과 P회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P회장은 업무 일정을 내리며 경찰 조사를 미루고 있으며,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도 전화 등을 받지 않아 수사에 진전이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처럼 해당 부서에서 초기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서부서 형사과에서는 오히려 성추행 피해 여성들과 주변인을 대상으로 공갈 혐의 등을 적용, 수사를 진행

하고 있어 내부 반발을 사고 있다.

여성청소년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성추행 사건을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데다, 피해자들이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사안에 대해 형사과에서 공갈 혐의 등으로 고소인을 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P회장)고소를 하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수사할 수는 없으며, 이런 수사 케이스도 거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맞물려 경찰 간부와 피고소인인 P회장과 사전 교감을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실제 광주일보 취재진이 P회장의 반론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하던 중, 서부서 형사과 간부로부터 “기사작성을 중단해 달라”는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

이 간부는 “성추행과 별개로 공갈사건으로 은밀히 수사 중이다. 오픈하지 말고 봐달라. (여성들이)요구한 금액이 많다”라고 말했다며, “P회장이 피해자다보니까, (전화)연결이 돼서 (취재기자에게)전화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감시탑 지하 시신 유기 콘크리트 밀폐”

전 교도관 제보에 5·18재단 확인 나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옛 광주교도소에서 희생자들의 시신을 감시탑 지하공간에 유기하고 입구를 콘크리트로 밀폐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5·18기념재단과 5월단체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13일 5·18재단은 “5·18 때 교도소 주변에 묻었던 시신을 꺼내 제1감시탑(교도소 남서쪽 모서리) 지하 공간에 유기한 뒤 콘크리트로 입구를 막았다는 이야기를 상사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옛 광주교도소 교도관의 제보가 들어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이날 5·18 당시 근무했던 다른 교도관과 제보 현장을 찾았으며 지하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현장을 확인한 정수만 비상안전연구원은 “1감시탑 지하는 10여명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넓이의 광장과 방 5개로 구성돼 있었다”며 “다만 일부 방은 내부에 물이 차 있거나 막아져 있었고, 조명 시설이 없어 자세히 살펴보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들어간 전직 교도관도 “처음 들어와 본 곳으로, 근무 당시 교도관들도 몰랐던 공간”이라고 말해 지하 공간의 활용 목적도 밝혀지지 않았다.

5·18재단은 법무부에 요청해 지하실 도면을 확보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헬기사격·전투기 출격 대기
제보를 받습니다

광주일보 : 062) 220-0633 / **국방부** 5·18특조위 : 02) 748-0975

미용실서 보톡스·쌍꺼풀 등 불법 시술

업주·유통업자 등 3명 구속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보톡스·리프팅·쌍꺼풀 등 불법 미용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미용실 주인 이모(여·45)씨를 구속했다.

또 보톡스 등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의료기기 업체 대표 유모(55)씨와 의약품 조제업자 윤모(46)씨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목포의 한 상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353회에 걸쳐 불법 쌍꺼풀 수술, 필라·눈썹 문신 시술 등을 해 수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쌍꺼풀 수술 20만~25만원, 필라 시술 10만원 등 일반 성형외과보다 저렴한 비용을 내세워 직장인과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불법 시술 및 수술을 했다.

유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반쯤팔은 수출용 의약품을 세관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입해 25차례에 걸쳐 국내 시장에 불법 유통하고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혼합해 다이어트 주사 용도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광주에 있는 유씨의 사무실에서 보톡스, 마취제인 리도카인, 태반 추출물인 펩스몬주 등 전문의약품류 8400여개(시가 4000만원 상당)를 압수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택시 안 기사 숨진 채 발견

13일 오전 6시44분께 담양군 금성면 한 마을 도로에 주차된 택시 안에서 기사 A(6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동네 한가운데 차가 주차돼 있어 다른 차들이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이날 새벽 광주에서 50대 남성 승객 B씨를 태우고 마을로 들어왔다.

마을 인근 CCTV에 A씨와 B씨가 실랑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러나 A씨의 몸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현장 감식과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ig@kwangju.co.kr

술 마시다 말다툼 끝 지인 얼굴에 래커 스프레이 뿌려



쌍다팔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 끝에 지인의 얼굴에 흰색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60대 남성이 경찰서행.

○13일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곡모(60)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40분께 광주시 북구 각화동 한 아파트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이웃 김모(60)씨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집에 보관중이던 래커 스프레이를 꺼서 얼굴에 분사했다는 것.

○경찰 조사에서 곡씨는 “김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장난삼아 스프레이를 뿌렸다”며 선처를 호소.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8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 각 물 건 소 재 지 및 면 적 [㎡]	용 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 고
[아파트]					
2016타경 18907	1	북구 임방울대로1041번길15, 105동 20층 21006호 [신원동, 용두주공아파트] 59.99㎡ [토지매출소외지장은지상권있음]	아파트	130,000,000	별도등기, 2016타경21856[중복]
2017타경 5615	1	광산구 임방울대로142-12, 108동 10층 1002호 [운남동, 삼성아파트] 70.97㎡	아파트	165,000,000	
2017타경 5714	1	북구 운양동 1089-2 운양3차유미아파트 2동 10층 1003호 85㎡	아파트	222,000,000	
2017타경 62359	1	남구 진월동 340 합천테크리미아파트 102동 11층 1202호 84.99㎡	아파트	145,000,00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7타경 7239	1	남구 월산동 238-15 155㎡ 동소 238-15 47.2㎡ 부속건물 변소 1.43㎡ [별실,매각제외] 제1외와 창고 등 71.1㎡	단독주택	102,673,600	일괄매각, 제1외 건물포함
2017타경 8539	1	광산구 도산동 887-17 96㎡ 동소 887-17 48.3㎡ 부속건물 광5.3㎡ 제1외와 창고 1.5㎡ [월부인절탄인주택마당으로 경계와상계이월경계가다소상이한것으로목측되나정확한측량요]	단독주택	74,409,000	일괄매각, 제1외 건물포함, 월실된 부속건물광[5.3㎡]제외
[대지/임야/전답]					
2017타경 4001	1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307-5 306㎡ [연고임] 산분포수기소지	대지	5,508,000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017타경 6960	1	나주시 남평동 광촌리 510 581㎡ 동소511,792㎡ [임부인절탄인주택마당으로 이용중목측되나정확하게는측량요, 타인소유수출[이따나루, 꽃사과나루등]제외]	전답	136,628,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목책2,3번확정
2017타경 7901	1	화순군 동면 오동리 산91 29455㎡ [현황치인형상대부분으로본수동화인근관, 일부도로로만단위되나정확한면적측지적측량요]	임야	73,637,500	수목[조식자:화순군청친산업과]이식제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 각 물 건 소 재 지 및 면 적 [㎡]	용 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 고
2017타경 8102	1	담양군 월산면 화방리471-7 1765㎡ [선경수지반1/5전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지분매각]	답	7,413,00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1회로제한
	2	담양군 용면 돌연리553-3 817㎡ [선경수지반1/5전부, 농작물[마늘등]및농림용창고이용중인비닐하우스제외,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9,806,400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2017타경 8904	1	나주시 문평면 복동리 산116 4066㎡	임야	6,912,200	숨어유거자발견소 6,912,200
[기타]					
2017타경 559	1	서구 쌍촌동 96 광영하이츠타운 상가동 3층 307호 88㎡	기타	81,000,000	
		담양군 수북면 황곡리 640-1 107㎡ 동소 640-2 200.1㎡ 동소 640-5 53.9㎡ 동소 640-6 1818.8㎡ 동소 640-7 5971.1㎡ 동소 640-8 201㎡	창고용지	391,734,950	일괄매각, 목책4,5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제1외수목포함, 제1외건물포함, 제1외비닐하우스및아파트가능한컨테이너제외, 목책1,3,6,7현황사무실, 창고, 퇴비사부지
2017타경 5172	1	담양군 수북면 황덕길 211 66㎡ 51.87㎡ [창고][공부상640-2, 640-5장지상이나현황640-2수제] 제1외 가차 252㎡ 동소 215 [가들] 140㎡ 동소 215 [나들] 동,식물관련시설 165.6㎡ 동소 215 [나들] 동,식물관련시설 165.6㎡	창고용지	391,734,950	일괄매각, 목책4,5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제1외수목포함, 제1외건물포함, 제1외비닐하우스및아파트가능한컨테이너제외, 목책1,3,6,7현황사무실, 창고, 퇴비사부지
2017타경 61868	1	서구 문전로154번길 30-2 1층77.39㎡ 2층67.63㎡ 부속건물 변소 1.62㎡ [별실,매각제외] 제1외와 창고 등 36㎡	점포, 주택	193,734,000	일괄매각, 제1외 건물포함, 내부구조중으로출입문, 창문등이없음
2017타경 62700	1	나주시 광산면 가승리 산212-3 8342㎡ [현황창, 담, 도로] 제1외 수목 소나무 등 51주 [제1외비닐하우스매각제외]	임야	527,363,000	제1외수목[소나무등51주]매각포함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합합을 변경으로 인한 현상부수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합병제 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된 매각기일에 매수신청보증금의 1/3으로 실효되

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7. 11. 28. [화] 10:00
3. 매각물건기일 : 2017. 12. 5.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장
5. 매각방법

① 입찰방법에 비하지 기입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발행의 기일당수표 또는 현금 등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서작성을 제출한 문서[일괄 보증서를 준비하여 함한다].
②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신청서,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종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의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추가입찰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원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결정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간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함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허가를 실시한다. 다만, 매각결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정자금,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지급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매각허가 실시하게 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증 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증서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즉각허가 함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책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다.

8. 주의사항
① 매각일 공고 또는 참가인원에 최선순위의 지양권 등이 설명된 날로부터 먼저 주민등록현상인지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입찰인이나, 사업자등록현상을 마친 원주민이 있을 때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다.
② 매각기일 당일 입찰을 위하여 매각물건 일에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참가자를 위한입찰(신청)과에서 전자중신(매수)비전 등 출력물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해당현 장정보를 열람한 후 입찰하여야 함다.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결정명세서의 설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다.
④ 입찰명단에 나열된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명령을 첨부한 위임장등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다.
⑤ 소유권이전등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됨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음다.
⑥ 공고된 물건번호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에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된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라지만,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무리함한 계약의 공고나 방법에 비하면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할 수도 있음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함다.
매각일 공고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음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제공하오도록 정하여져 있고 이러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현재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결과가 실효되어, 대금결정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음으로, 신청자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계약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하면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7. 11. 14.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노덕생